**[감격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열매] (지난 STP의 열매들)**

**07/11(월)**

최진명 : 오동근(고등학생)

"**감격책자 – 구원**, 간증을 나누고 난 후 생각이 많이 났었고.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주신 사실에 감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동근 학생은 마음이 순수한 학생이였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만으로 되는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었으나 다리예화로 차근차근 말씀을 알려줬을 때, 말씀을 인정하며 영접하였습니다."

**07/15(금)**

이준우&최진명 : 김유민(카이스트, 계절학기) 영접

"**감격책자 -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삶이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니까 주변에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임용관련 일들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았으나, 분주하게 지내다가 책자를 읽으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이 들어서 진명이와 함께 전도하였는데 영접자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김유민 학생은 처음에 이단이 아닌가 경계하였습니다. 계속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다리예화) (말씀을 통해 신뢰하며) 본인이 오해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가지 종교에 대한 의문점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종교에 대한 지식보다 영접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영접하였습니다."

조일현 : 이동현(통계학과, 1학년) 영접

"**서울대 History 메세지 말씀 (살전5:24)**을 수요일에 배우면서 캠퍼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요일날 학교에 왔는데, (준우,진명)형제들이 전도해서 영접자를 얻었다는 간증이 더욱 동기가 되어서 전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동현 학생은 교회 배경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였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을 못하였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니 영접하였습니다."

이형호 : 오승호(화학부) 영접

"**감격책자 -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신분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확신있게 복을 나눠야되겠다는 동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승호 학생은 졸업하는 학생인데, 연구실에서 인턴을하던 학생이였습니다. 추천서를 받아야한다고 찾아왔고, 전도해서 영접하였습니다."

**7/17(토)**

이형호&성영훈 : 중학생(이름 모름) 두명 영접

"**감격 책자 - 구원**을 받게 된 신분이 천사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배운 것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가 하지 않았고,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였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였습니다. 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내용 중 제 자신이 약속의 주인공임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들으며 확신 가운데 복음 전할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토요일에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학생들이 별로 없었지만 체험학습을 왔던 중학생 두 명을 만나게 되어 영접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 하였기에 길을 알려주며, 대화를 하였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복음을 전해주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정현&음영후 : 이도원(영후 친구) 영접

"**감격 책자 - 구원** 내용 중 요3:36 구원에 대한 내용, 원래는 진노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 주님께 순종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내용 기억하면서 정현&영후가 같이 감사기도하고 만났습니다. 도원이는 배경이 없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뜻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선생님 메세지, 서울대 사역 내용** 중, 영접을 강권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서 영접을 강권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7/19(화)**

정명현 : 김병현(군대선임) 영접

"**요한복음 4장**을 배우고, 한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현은 이전에 부대에서 복음 전했을 때는 믿지 않았었는데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 견고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상태였음) 말씀을 설명해줄 때 잘 받아들였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7/21(목)**

조일현 : 장문수(직장인) 영접

"**감격 - (교회) 내용 中**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sharing을 보고,

내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를 건져주신 것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기도하게 되었고, 누군가 (장문수씨)가 역에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어서 바로 전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계속 생각이 되어 돌아와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분은 최근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하였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하며 “그런데 그 일이 쉬운일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성경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먼저 영접할 것을 권했을 때 영접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성경 주기로 하였습니다."

**7/22 금**

정석훈 : 배정명(카이스트, 서울대 인턴, 물리학과) 영접약속

"**감격책자**, **교회로 부르심, 복의 근원** 내용들이 생각이 많이 되었고, **요한복음 4장** 내용, 개인적으로 사마리아여인과 교제한 것처럼, 한사람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정명 학생은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서서 잘 들었습니다.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교수님께서 전도를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영접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아직 자신은 영접하지는 않았고 집에 가서 영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서울대 오면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

지금(22.07.24.일요일)까지 총 10명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